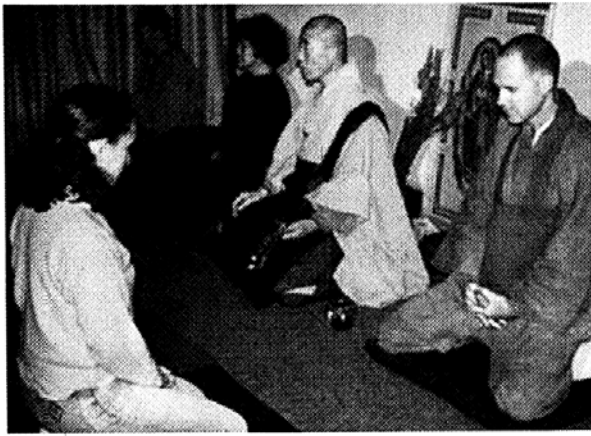


“미주한국불교 현지화노력 필요”

스님·학자·관계전문가 심포지엄 한목소리



◇1967년부터 미국, 캐나다 등지에서 4곳의 선현사를 창건한 자혜불교회 회주 삼우 스님(오른쪽에서 두번째)은 참선 좌세를 변형시키는 등 현지화로 포교에 성공했다.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6일 카멜 삼보사에서 삼보사 창립 30주년 기념으로 열린 ‘미주한국불교의 과거와 현재, 미래’ 주제의 심포지엄에서 스님과 학자, 관계전문가들은 모두 이같이 한 목소리를 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조은수 교수(미시간대, 아시아 언어문화학과)는 “현재 미국내 한국불교는 미국 불교로 동화내지 전환해가는 상황”이라며, “전통을 넘어서 미래의 불교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미국의 문화에 적응해 창조적으로 변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형근 미주현대불교 발행인은 “미주내에는 100여개의 한인사찰과 30~40여명의 스님이 있다”면서, 대부분 사찰의 신도수가 적고 신도의 고령화와 빈약한 재정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김형근씨는 “미주포교의 활성화에 위해서는 불공과 기도 위주의 범회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2세와 미국인들을 신도화 하기 위한 불교 교양대학과 토요 한글학교 개설, 동양 사상강좌, 참선 수행 등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을 제시했다.

전 가주국제문화대학 김재범 교수(사회학)도 “미국내 한국불교가 선불교의 전통을 제대로 이어가려면 문중중심과 기복불교의 폐단을 극복, 미국에 뿌리를 내릴 수 있을 것”이라며 “개척불교”가 아닌 ‘교포불교’에 머물고 있는 현실을 극복하고 한국의 불교 전통과 수행을 미주 사회에 정립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미국문화 적응 창조적 변용 모색해야

포교사 양성·영문불서 등 인프라 구축도

36년 전 미국으로 건너가 한국의 선불교를 전세계에 포교하기 시작해 30개국 120여 곳에 선원을 창건, 5만여 외국인들에게 불법을 펼쳐온 승산스님(화계사 조실).

1972년 승산스님은 미국에 프리비던스 선원을 개원, 제자들에게 첫 번째 수계식을 집전했다. 그해 겨울, 승산스님은 한국과는 달리 미국인 제자들이 출가해 스님이 되기보다는 일상생활을 하며 수행을 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고 미국식 ‘법사제도’

를 창안했다. 이때부터 국제포교의 기반이 빠르게 구축되었을 뿐 아니라, 많은 외국인 제자들이 모여들었다. 스님은 하버드 랭귀지 스쿨에 등록해 직접 영어를 배우고, 미국인들이 선불교를 일상적인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현지인 포교에 나섰다.

미주 포교 40주년을 한 해 앞둔 지금, 현지 ‘개척불교’가 아닌 ‘교포불교’에 머물고 있는 현실을 극복하고 한국의 불교 전통과 수행을 미주 사회에 정립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방글라데시 불교 지켜달라”

한국거주 현지인들, 자국내 불자 보호요청

한국에 살고 있는 방글라데시 불자들이 자국내 불교인들의 안전보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방글라데시 불교친선협회 사무국장 바루아(S.K. Barua)씨를 비롯

한 20여 방글라데시 불자들은 8일 한국주재 방글라데시 대사관을 방문해, 지난 4월 중순 있었던 가나조티(Rev. Gyanjoti) 스님 피살사건의 살해범 체포와 불교활동의 안전

보장을 요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했다. 이들은 공문에서 “가나조티 스님의 죽음은 방글라데시 전체 불교인들의 죽음을 의미한다”며 “살인자를 즉각 체포하고 방글라데시에 있는 500개 사찰의 안전보장과 스님이 운영하던 고아원을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이어 조계사로 자리를 옮겨 가나조티 스님 살해범 즉각 체포와 방글라데시 불교인들의 안전을 요구하는 기도를 드린 뒤 피켓시위를 벌였다. 방글라데시의 대표적인 사회복지활동가인 가나조티 스님은 지난 4월 21일 이슬람교도로 추정되는 강도에 의해 두상이 잘리우는 잔혹한 살인으로 목숨을 잃었다. 방글라데시 정부는 불자 300여명이 대정부 규탄시위를 벌이자 몇 개 사찰에 경찰력을 증강시키는 했지만, 살해범 검거에 대해서는 여전히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 김재경 기자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에 대한 답이 여기 있습니다.

밝은길 아바타 센터 전화주시는 본개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경전의 이 말씀, 당신께서 투자하는 단, 9일간의 내면 여행으로 터득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 종로구 풍향동 45번지**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 02)396-2736 · HP 016)228-2358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 bokbat@kornet.net

마스터/위저드 김희균



◇전등사는 ‘한 사람의 외국인이 한국불교 홍보대사’란 정성으로 외국인들에게 불심을 심어 주었다. 새벽예불을 병행하는 외국인들.

전등사 ‘템플스테이 으뜸사찰’ 평가

홍보·지역연계·통역봉사자 등 치밀한 준비 수목화전·갯벌체험·염전실습 등 좋은 반응

외국인 117명 숙박, 3200여명 방문으로 템플스테이 으뜸 운영 사찰로 평가받은 강화 전등사주지 제성의 노후화가 화제다. 전등사는 자체 영문 인터넷 사이트(www.jeondeungsa.org)를 운영하고 강화군청과 긴밀한 협조 아래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개발했으며 외국인들과의 충분한 면담, 학교 및 지역축제와 연계 활동, 외국 대사관 및 지역언론 홍보, 우수한 통역 자원봉사자(13명) 등 알찬 기획과 빈틈없는 준비로 많은 외국인들의 호응을 얻었다.

특히 전등사와 ‘문화집단 숭대’가 공동 주최해 월드컵 기간 동안 전등사 갤러리에서 연 ‘자연, 그리고 자연과 하나된 사찰 수목화전’과 수목화 서예 학습 및 체험은 외국 관광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이밖에도 전등사는 예불과 참선, 갯벌 체험, 염전 실습, 색종이로 민속의상 접기, 취나물 고사리 등 5가지 나물을 비벼먹는 발우공양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마나산이나 인근 보문사 등 문화유산 답사도 반응이 좋았다. 김재경 기자

22일 금정산고속철 2차 토론

범대위, 27일 대규모 불교도대회서 ‘반대’ 재천명

경부고속철이 금정산을 통과할 경우 발생되는 생태부담, 소음진동부분에 대한 학술적 자료들이 제시될 토론회가 열릴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은다.

22일 열리게 될 금정산 고속철 통과반대를 위한 2차 토론회(생태, 소음진동, 설문조사)에서는 경부고속철이 금정산 생태에 미칠 영향에 대한 학술적 근거와 더불어 시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경부고속철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도 함께 발표될 예정이다. 12개 문항으로 구성된 이 설문지는 경부고속철 구간에 대한 의견을 묻는 문항과 부산-경남 구간중 천성산과 금정산을 통과하는 것에 대한 찬반, 금정산과 천성산 통과에 대한 찬반, 금정산 통과에 대한 찬반의 의견을 수렴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설문조사는 침묵했던 대다수 부

산시민들의 경부고속철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는 점에서 결과가 주목된다.

이날 토론회에는 전국습지보존대책위원회 이인식 대표, 부산카톨릭대 김화일 교수, 동국대 조경학과 이영경 교수 등이 발표자로 나서 ‘금정산 습지의 중요성’ ‘고속철 금정산 통과에 따른 소음진동의 영향’ ‘경부고속철도 부산시민 의식조사’ 등에 대한 주제 발표를 갖는다. 또한 금강암 주지 정만스님, 녹색연합 서재철 부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금정산 고속철 통과반대 범시민대책위’는 토론회에 이어 27일에는 대규모 범불교도대회를 열어 ‘생태계와 환경을 파괴하는 경부고속철 금정산·천성산 통과를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천명할 방침이다. 부산=천미희 기자

호국영령추모비 건립

진여원, 화명근린 공원내

해마다 보훈유가족을 초청, 호국영령추모비 및 보훈가족 위안잔치를 열어온 조계종 포교원 진여원(원장 남보타월)이 호국영령추모비를 건립한다. 오는 24일 화명근린공원내에 세워

지게 될 호국영령추모비는 폭 2m 50cm, 높이 5m로 배상도 북구청장과 박석식 53사단 125연대 6대대장의 도움으로 제작될 예정이다.

남보타월 원장은 “호국영령들의 고귀한 희생정신이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값진 교훈이 되길 바라며 그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함양하고자 추모비를 건립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부산=천미희 기자

목사 문화부장관? 목탁소리 북한산 은 정체불명 승려들

한명우 (취재1부 차장)

“얼마 남았다고 또 바귀” “뒹야, 불교를 휘어잡겠다는 것도 아니고.”

11일 문화관광부 장관에 김성재 학술진흥재단 이사장이 임명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불자들이 은 한결같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성재 장관은 우선 문화부의 주요 업무인 문화 관광·체육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기 힘든 경력을 갖고 있다. 청와대 정책기획수석비서관 출신으로, 대통령자문 새교육공동체위원회 상임위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회장 등이 주요경력인 전부임을 감안하면 전문성을 고려한 인사라고는 볼 수 없다. “구멍가게 주인도 아무나 할 수 없는 건데, ”라는 비아냥이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김성재 장관이 누릴 재임기간은

목탁소리

겨우 5개월이다. 업무파악만 하지도 해도 부족한 시간이다. 그런 마당에 50개가 넘는 소속기관과 단체들을 거느리고 있는 문화부 행정을 파악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문제는 또 있다. 김성재 장관은 개신교 목사이자 신학자이다. 다른 종교의 입장에서 보면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문화부 장관은 불교, 천주교 등 주요 종교는 물론 민족종교까지도 끌어안고 가야 하는 자리다. 본인이야 객관적으로 임하겠다고 하겠지만 목사로서 과연 문화부장관으로서 책임자인지 의문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김 장관이 문화부를 어떻게 이끌어갈지, 그리고 편견없이 모든 종교를 끌어안을 수 있을지는 두고 보아야 할 일이다. 하지만 인사(人事)는 만사(萬事)라고 했다. 그런 점에서 이번 문화부장관 인사는 아쉬움이 짙게 남는다.

북한산 은 정체불명 승려들

김원우 (취재1부 차장)

11일 오전 10시 북한산 승추능성장인 철마선원 60m 앞까지 정체불명의 승려 150여명, 괴청년 30여명이 들이닥쳤다. 12시경 철마선원을 폭력으로 침탈하려 한다’는 소식을 듣고 조계종 스님들과 불자들, 그리고 취재기자들이 속속 현장에 몰려들자 그들은 ‘조계종 정법수호회’ 명의로 북한산 관동도로가 건설돼야 한다는 요지의 성명서를 발표 후 철수했다.

그동안 북한산 문제가 불교계와 정부, 서울고속도로(주), LG건설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정법수호회 소속 승려들의 출현은 전혀 예상치 못한 일.

조계종 환경위원회 부위원장인 현응스님은 11일 기자간담회에서 “LG건설이 정화개혁회의에 참여했던 승려들에게 수습역원의 금전보장을 약속하고 농성장 해산 청부를 의뢰했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10일전부터 받았지만 ‘설

마’ 했었다”며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경악했다. 철마선원은 북한산관동도로 공사를 저지하여 자연과 수행환경을 지키려는 불교계 환경수호의지의 보루다. 그런 곳에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일군의 승려와 괴청년들이 들이닥쳐 건설사 입장을 옹호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납득 못할 일이다.

조계종 환경위원회의 주장대로 이번 사건의 배후에 건설사가 있다면 참으로 위험스럽기 짝이 없다. 불교계의 반대의지를 또다른 불교계 세력을 매수해 ‘공격’ 케 하려는 어이없는 발상이 아닌가. 만약 사실로 확인된다면 시공사는 돌이킬 수 없는 자중수를 든 것이 되었던 ‘승복입은 분발’도 어퍼한 형태로든 불이익을 받을수 있다는 점을 인지했으면 한다.

최면 수련생 모집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최면-전생을 통하여 그 물음에 대한 답을 찾아보십시오. 전생(前生)의 문을 열면 당신의 부처를 만날 수 있습니다.

강의 내용

- ① 타인최면유도
- ② 최면으로 하는 제령(際靈)
- ③ 원격최면
- ④ 전생퇴행최면
- ⑤ 파동(波動)요법

점(占)과 철학으로 사람의 운명을 상담하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최면-전생 요법으로 당신의 전생과 미래의 삶의 모습을 마음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십시오. 그래서 이 삶이 얼마나 소중한 영혼의 완성을 위한 배움터 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각각의 전생의 카르마(業)에 의해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그 예정되어져 있는 영혼의 프로그램을 최면전생을 통하여 확인하십시오.

- ◆ 강의시간 : 주 3시간, 3개월 과정
- ◆ 문의처 : 051)806-8500, 051)817-6156
- ◆ 홈페이지 : www.dongbang21.co.kr

동방 최면 전생 연구소

미얀마 아우미따지 대학원

제2회 명예 (박사) 학위 취득 연수

세계불교 중심지이며 불교의 극락이라 불리는 미얀마 아우미따지 대학원에서 제1회 박사 학위를 취득하신 분들의 요청에 의해 다시 한번 연수교육을 실시 하게 되었습니다.

- ❖ 교육과목 - 백침술(100% 확실하게 살빼는 속효 법) 정통사주학, 관상학, 특성법, 비방단침술, 특수기공도통법
- ❖ 지원자격 - 학력, 나이 관계없음(선착순 25명)
- ❖ 제출서류 - 등본2통, 사진5장, 여권, 비자, 지원서1통
- ❖ 접수기간 - 양력 7월 15일 ~ 8월 26일까지. (일정은 앞당겨 질 수 있습니다)
- ❖ 교육기간 - 양력 9월 1일 ~ 6일 까지(5박6일)

전화 031)867-4131, 011-214-4135, 018-370-4133

MYANMAR, YANGON

yangon office : 5b 3b floor, kamayut, townshlp 2ayarthlrl rd,

아우미따지 불교성도대학 한국분원 사무국